

# 정부예산 확보 맞춤형 희망근로지원 추진

## 군산시, 국비 45억 투입

군산시는 고용 및 산업위기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비 45억을 확보해 실직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희망근로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희망근로지원 사업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군산사람

상품권 지원 1개 사업 ▲지역공간 개선형 지원 사업(환경정비 등) 11개 사업 ▲어린이등하굣길안전도우미 1개 사업 등 총 3개 유형 13개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참가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군산시민으로 1순위는 실직자와 그 배우자, 2순위는 취업취약계층 순으로 우선 선발

한다.

이번 사업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산 및 소득 초과자, 반복참여자도 모집인원 미달 시 선발될 수 있으나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중복참여자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참여에서 배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사업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로 이뤄지며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최저임금(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창출과(☎454-43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 군산시, 청소년 정책평가 여성가족부장관 기관 표창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반을 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가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주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성과 등 3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청소년 참여증진 활성화 및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강화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청소년 포럼 개최도 인정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소년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이 지역사회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진다"며 "앞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청소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정책과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 공유 모바일 앱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축제인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개최로 ▲다양한 특기 체험 및 계발 ▲인성과 사회성 함양의 기회 제공 등 지역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교도소세트장

### 시설보강 관광객 유치

익산시는 성당면 교도소세트장에 대한 시설보강을 통해 관광객유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세트장 내 바닥을 보강하고 연결통로의 개선, 화장실 확충 등을 통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과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관광객 전용 망루, 소법정, 식당, 주차장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시설보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광객의 불거리와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세트장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포토존, 휴게시설,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건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휴무없이 세트장을 개방했다.

시 관계자는 "3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된 교도소세트장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이야기가 존재하며 감동의 순간을 느낄 수 있는 한국영화의 중요한 장소다"며 "시설보강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 제공으로 더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고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염병 차단... 군산시, 명절 연휴 반납 방역활동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설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시민들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연일 전염병 확산 차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시 명절 연휴 기간 내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승복 부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리는 구제역 영상회의에 전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시는 264개 농가의 소, 돼지 4만8,000여두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가축사육농가에 생석회 42톤을 도포하고 축사 내부와 주변에 대해 일제 소독과 함께 유무선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가 전염병 확산 차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AI와 구제역 전염병 차단 방역체계를 철저히 가동하고 농가 소독지원에 힘쓰겠다"며 "농가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 익산시, 서동축제2019 UCC 공모전 개최

익산시는 서동축제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전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하는 서동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참신하고 독창적인 축제홍보를 위해 마련했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서동과 선화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축제 모티브에 맞게 '나의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패러디, 드라마, CF 등 모든 장르의 영상 출품이 가능하다.

완성도, 활용도, 창의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영상 제안자에게는 최우수상(1팀) 50만원, 우수상(2팀) 20만원, 장려상(4팀) 10만원, 아차상(5팀) 3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서동축제의 홍보영상으로 사용된다.

참가 희망자는 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 후 유튜브 링크를 첨부한 참가신청서와 영상파일(mp4, avi 등)을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seodongucc@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동축제 UCC 공모전은 축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축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신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축제를 빛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학교는 재미어트와 공동으로 라오스 치과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 원광대 라오스서 치과 의료봉사활동

원광대학교는 봉사활동 단체인 해피메이커 재미어트와 공동으로 라오스 우뚝싸이에서 치과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원광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봉사활동에 피성희(치과대학) 교수를 단장으로 치과의 3명과 재학생, 스텝 등 14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해피메이커 재미어트와 함께 우뚝싸이 산골마을 단사이 중고등학교에서 205명, 소수종족 학교에서 140명, 프인뭇초중고등학교에서 85명 등 총 430명에게 치과진료를 펼쳤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3곳을 이동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한 충치치료, 스케일링, 치주치

료, 발치, 불소도포 등을 시행했다. 또 칫솔과 치약 제공을 비롯해 올바른 양치법, 진료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 시간도 가졌다.

반점초등학교에서는 굴렁쇠놀이, 투호, 공기놀이, 케이팝공연 등 한국문화 알리기 문화교류를 국민대 봉사단과 함께 전개했다.

한편 전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원광대를 비롯해 서울여대, 명지대, 국민대, 동국대, 동덕여대, 경희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했다.

연합봉사단은 라오스 우뚝싸이 프인뭇초중고등학교 교사·기술사 신숙와 시설보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했으며 주변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프로그램도 시행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통과 협업 일하는 문화 조성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상호간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의 본격적인 실행에 앞서 현안사업 공유 및 소통과 화합으로 협업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연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병래 소장은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직원 상호간에 업무에 대한 공

유와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연찬을 통해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이를 실천하고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산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기본 시동을 거는 오는 3월부터 8대 핵심 전략별 로 부서 간 협업에 의해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군산=김정훈 기자

##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